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 균형 잡힌 신앙 (느 4:15-23)

### A Well-Balanced Faith (Neh 4:15-23)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박노철 목사

God doesn't take the place of what we should do and doesn't ask us to do what He can do. When we clearly divide God's work with ours and we faithfully fulfill what we must do, the work of a miracle will be accomplished.

God is able to do everything but He lets us do what we must do and to do the right things. Therefore, God lets us take part in His work.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일, 옳은 일을 하게 하시므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 1. Do what you must do!

Nehemiah was in the midst of blame and mockery by a strong enemy. He had difficulty in rebuilding the wall itself, and also, such enemies like Sanballat and Tobiah sometimes disturbed the rebuilding, and even showed armed force. At that time, Nehemiah first of all prayed to God earnestly. However, he did not only pray but also continued to work, "So we built the wall till all of it reached half its height, for the people worked with all their heart.(Neh 4:6)"

By praying to God, he was able to concentrate upon the rebuilding the wall more effectively together with the people.

In verses 17, and 21-23, the moment that they worked with one hand and held a weapon in the other, was the moment that they worked from the first light of dawn till the stars came out. It was the moment that they worked during the entire night keeping a strict watch, and the moment that they never took off their clothes nor even went for water, watching every move of the enemy.

In this way, Nehemiah who faithfully and sincerely rebuilt the wall as he was supposed to do allowed the Jews to witness a miracle for they achieved building the wall of Jerusalem in 52 days.

#### 1.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느헤미야는 버거운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을 재건하는 일 자체도 힘든데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이 시시때때로 일을 방해 하고,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때도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4:5).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성을 재건하는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본문 17절과 21-23절은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은 모습,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하는 모습,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는 모습,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에도 적군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는 모습 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성과 성실로써 행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만에 완성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 2.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계속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시 37:3).

승리의 삶을 사는 확실한 원칙은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둘째는 선을 행해야 하고, 셋째는 항상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은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 2. Keep on doing the right things before God!

Psalms reveal to us,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Psalm 37:3).

The positive principles of a victorious life are: the first is 'Trust in the Lord,' the second 'Do good,' and the third 'Be faithful.' However, doing good means that even when we are in a state of confusion, we must always keep on doing the right things in front of God without ceasing.

God's focus is not in the miracle. His focus is in us. It means that through God's miracle that He accomplishes, He lets us enjoy His work by taking part in it. Through His miracle, the fact that we come closer to God, and share friendly fellowship are His purpose.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 My beloved Christians!

당신은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시면 됩니다. Keep on doing right things.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Did you pray to God? If so, through that prayer and His word, you will know what you must do. From now on we must do our work faithfully as best as we can with enthusiasm. Keep on doing the right things! Then God's power will come and the miracle will be accomplished.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균형"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균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If there is an important word in the faith, it is "balance." It is really important that we must keep the balance between God's work and ours. Before God we must pour out our heart and pray. After praying, by working in what you must do as best as you can,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and I will become victorious like Nehemiah and give glory to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하나님 앞에 나와 심령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므로 느헤미야처럼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오늘은 맥추감사절

## 주일 I · II · III부 예배 - 성찬식 / 찬양예배 - 교육1국 특별 순서

우리교회는 7월 첫 주일이 되는 오늘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봄에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다. 유대민족은 유월절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로 지킨다.

오늘 주일 I · II · III부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헌금도 드린다. 그리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육1국 어린이들이 준비한 특별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변화를 주도하는 장로교회

## 2011 장로교의 날, 7월10일(주일) 오후5시, 장충체육관

2011 장로교의 날 행사가 7월 10일(주) 오후 5시부터 장충체육관(3호선 동대입구역 5번출구)에서 열린다. "변화를 주도하는 장로교회"를 주제로 진행되는 장로교의 날 행사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1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찬양예배, 장로교회의 개혁을 선언하는 2부 개회식, 장로교 전통에 따른 3부 예배, 향후 한국장로교 100년의 비전을 밝히는 4부 한창총 선언으로 진행된다.

우리 교회 이종윤 원로목사(직전대표회장)는 이날 2부 개회식에서 격려사를 한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 연합과 일치를 선포하는 이 예배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일 찬양예배는 계속 드리겠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길 소원한다.

# 이종윤 원로목사 순례자 칼럼 연재

## 7월 2일(토)부터, 한국장로신문에

### 이종윤 목사, 새 칼럼 '순례자' 연재



저명한 신학자이며 성공 목회자로 평가받는 이종윤 목사의 새칼럼 '순례자'를 본지 9면 우측 상단에 7월 2일부터 연재된다. 서울교회 원로인 이 목사는 현재 한국기독교교회술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종윤 원로목사의 '순례자' 칼럼이 한국장로신문에 연재된다. 이번에 연재되는 새로운 순례자 칼럼 역시 오래 전 동아일보에 연재되었을 당시처럼 큰 관심과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11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신6:4-9, 마28:18-20)

2011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는 7월9일(토) 장년부, 사랑부를 시작으로 계속된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

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심을 얻는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4(주일)~26(화)	서울교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우리가 다음세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박진아 목사
유년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김안성 목사
초등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요.	서명철 목사
중등부	7.25(월)~27(수)	아가페타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미래	박노철 목사, 박종민 목사
고등부	7.21(목)~23(토)	아가페타운	이땅의 미래 - 다음세대 고등부	박노철 목사, 노현상 목사
사랑부	7.9(토)~10(주일)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일꾼이예요.	한상은 목사
대학부	7.20(수)~23(토)	아가페타운	주님과 함께가는 청년!	박노철 목사, 유동건 목사
청년1부	8.14(주일)~16(화)	아가페타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박노철 목사, 장석남 목사
청년2부	8.15(월)~17(수)	아가페타운	아기와 보아스	박노철 목사, 황 광 목사
디아스포라	8.5(금)~6(토)	아가페타운	새로운 부흥을 위한 우리의 도전	박노철 목사, 박광일 목사
에바다	7.28(목)~30(토)	아가페타운	다음세대 - 에바다부	박노철 목사,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8.14(주일)~15(월)	아가페타운	결혼, 가정, 자녀	박노철 목사, 한상은 목사
영어예배부	7.29(금)~30(토)	아가페타운	The Gospel for the World	박노철 목사, Steven Martinolich 목사
장년부	7.9(토)	서울교회	다음세대를 세우는 장년부	정수길 목사, 박응규 교수

# 2011년(3/4분기) 섬김위원 추가 임명

###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 : 정영주1 김대용 장현 · 할렘루아 : 정혜영1 김유근1 최은희
- 베들레헬 : 유치열 이기일 조상환 신규철 이은호2 임우택
- 예루살렘 : 박준영 신현일 이윤재 · 호산나 : 황현숙 권명희 윤금숙
- 시온 : 김정아1 김대용 ·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 이지예

### <교육위원회>

- 중등부 : 방미애 최은석 · 고등부 : 이호준 최성울

### · 디아스포라부 : 민영기 오종원 홍현숙

### <교구위원회>

- 2교구 간사 : 권영월 · 6-1 : /양지훈 · 9-10 : /이순영
- 9-13 : 김순자/이미경 · 13-5 : /양연화 · 13-11 : /전영미3
- 13-18 : /양영순
- 식당관리부 : 양인수 · 차량관리부 : 박명규 이종창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9]

(문 7)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장의 저자가 다르기 때문인가요?

(답) : 창세기 1장의 31절 전체에서는 '엘로힘'으로 2장에서는 '여호와'로 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으로 저자가 다르다는 주장은 성급한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이론은 1753년에 불란서의 의사인 Jean Astruc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 J. G. Eichhom이 이 이론을 확대 발전시켜 창세기 전체와 출애굽기 6:3까지 포함시켜 연구한 후 야훼(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자료설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야훼에 연관된 것들은 모세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자료(J)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 6:3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인지 '내가 여호와 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지를 확인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구약전체에서 26회나 나타나 있습니다. 출 6:7에서도 '나는 애굽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인 줄 너희가 알지라' 심지어 애굽사람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출 14:4) 했습니다. 바로 까지도 출 5:2에서 모세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출 6:3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El Shaddai)으로 나타났으나 내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일으켜 출애굽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야훼(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한다면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자신을 선민의 보호자와 예배의 대상으로서 선민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냈다면 '엘로힘'은 창조주로서 섭리적 통치자로서 전 세계와 관련된 하나님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엘로힘은 이방인이 말하거나 이방인에게 말할 때 또 이방인에 대하여 말할 때 사용되었고 보통명사의 의미가 요구될 때 사용된 것입니다. 고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것은 선민의 하나님 여호와와 선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엘로힘을 나타낸 것뿐입니다.

(다음 주 계속)

장년부 수련회 초대

#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년부



박두호 장로 (교육5국 국장)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미혹에 빠져 인생을 한숨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

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지혜롭게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해골처럼 죄악에서 깨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우리 주님은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이스라엘

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었듯이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자리로 서울교회 장년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을 감당해야할 교육5국 장년부 회원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영적 충만함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금번 장년부 여름 수련회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박응규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한국교회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도전받고 우리들의 사명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 교육5국(장년부) 신앙강좌 1,2부 수련회
- \* 7월9일(토) 9:30-13:00 웨스트민스터 홀
- \* 참가자 등록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접수
- \* 등록비는 5,000원입니다.

소요리문답부 초대

# 초대합니다



윤운 권사(3교구)

1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를 닦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부는 소요리문답서를 교재로 신학적 통찰력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신 김은수 목사님께서 강의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입니다. 소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3개 중 하나로 총 107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 예배 후 801호에서 공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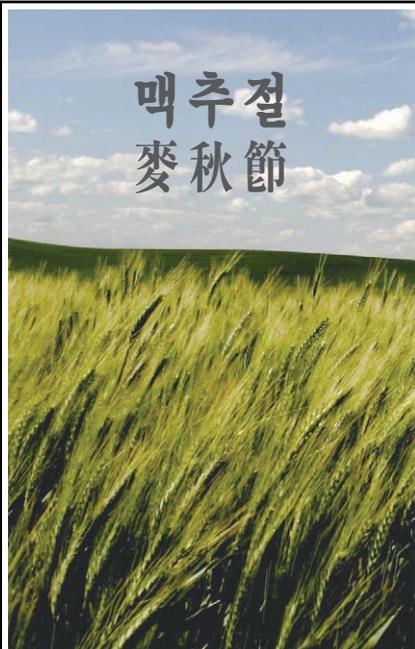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學海無邊(학해무변), 배움의 바다는 끝이 없습니다.

소요리문답부는 새가족부를 마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필수 단계이며, 신앙의 경륜이 계신 성도

님들께서도 다시 배우고 익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과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가슴에 한 말씀이라도 더 새기고자 애쓰시는 김은수 목사님, 반원들을 기도로 보살피는 교사님들, 그리고 반원들 간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로 소요리문답부는 날로 부흥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풀송이 처럼 단 말씀, 성경퀴즈대회, 생일축하, 가족공동체수련회를 통한 반원들간의 돈독한 사랑과 우정이 가득한 소요리문답부는 즐거움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보화와 같은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김으로 신앙의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해갈 되고, 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절로 묻어나오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소요리문답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맥추절 麥秋節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써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렀다(출23, 34장, 레23장, 신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킨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킨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성경에만 나온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지킨 절기이다. 따라서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출 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로 지키고(금년은 6월 12일),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킨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말자.

고백영회권사 추모사

# 안식하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영희 권사님, 지난 토요일 당신께서 소천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한 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함께

눈물과 고난 가운데 서울교회를 탄생시키고, 스무 살 늙름한 청년이 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한 당신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 서울교회가 텅 빈 것만 같습니다.

수십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목숨처럼 여기며 섬기던 교회가 불의에 빠지자 분연히 그곳을 떨치고 일어나 진리를 따라 광야길로 나선 당신은 정녕 믿음의 여장부였습니다.

당신은 그 때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그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흘릴 눈물을 그때 다 쏟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백영희 권사님 당신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실 분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자들에게 마음을 쏟으시어 부군 이임희 집사님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또한 남모르게 어려운 이들을 돌본 일도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당신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섬기신 일들을 어떻게 다 열거하겠습니까?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당신은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6대째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주시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권사님은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 손들에게 "조금 더, 조금만 더..."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지요.

이제 우리도 권사님의 믿음을 본받아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백영희 권사님, 우리는 당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억할 때마다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과 주의 종을 섬기던 모습과 주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일들을 떠올리게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신 백영희 권사님, 이제 예수님 품에서 안식 하소서.

2011년 6월 29일  
오정수 장로

홍해작전

# 우리 개근했어요!



신동준(유년부)

아침 4시30분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교회에 도착하면 4시50분. 깜깜한 교회에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종윤 목사님 지켜주시고 박노철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의 생활 지켜주세요. 아빠, 엄마, 우리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홍해작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드립니다.

새벽마다 힘들었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준이가 될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장애라(초등부)

저는 이번 2011 홍해작전에 20일간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매년 홍해작전이 올 때마다 저희 가족은 목표를 가지고 옵니다. 저희 가족의 이번 목표는 '본당 불이 켜지기 전에 미리 앉아 예배를 준비하기입니다.

약속대로 예배에 단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홍해도 건너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6월 말에 있을 기말고사 공부도 해야 하는 일과가 있어 하루가 정말 짧았지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엄마와 상의해서 하루 동안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동생과 나는 다음 날의 홍해작전을 위해서 저녁에 7시쯤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나옵니다. 내년 홍해작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홍해작전에 계속 기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난 7월 1일 (금)에 중앙교회 담임목사인 김형준 목사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맥추감사절을 맞아 교육1국(국장:홍성주장)에서 준비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유아부는 노애리선생과 한문영선생의 지휘로 어린이 40명이 "하나님 고맙습니다"의 두 곡을, 유치부는 도지혜선생의 지휘와 신가현선생의 반주로 70명의 어린이가 성경암송과 "하나님 주신 선물"의 두 곡을 드린다. 유초등부는 박재원선생의 지휘와 권보화, 양혜선 선생의 반주로 40명의 어린이들이 합창과 율동으로 "우리 주안에 한 가족"의 두 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홍해작전

# 그리스도를 본받아

### 박길순 집사(10교구)

우리 광주다락방은 10 교구 5, 11다락방입니다. 먼저 오행시로 소개하겠습니다.

- 광: 광대하신 여호와께 찬양 드리며
- 주: 주의말씀 사모하는 열심 가지고
- 다: 다비다의 선한행실 같이 하면서,
- 락(낙): 낙원까지 동행함을 기뻐합니다.
- 방: 방주되신 예수님을 의지 하면서...



서울교회에서 약 40킬로미터 전후의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다락방은 황광 목사님의 지도 아래, 김재근 집사님과 안분선 권사님이 구역장님이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으로 유명합니다.

교회의 금요기도회와 중복을 피하여 목요일 저녁에 모이는데 그 때마다 웬 화제와 웃음이 그토록 많은지... 이미 알려진 교회소식도, 다시 새기는 주일의 설교말씀도 정말 새롭고, 집에 계신 시모님과, 지방 혹은 외국에 계신 친정어머니의 건강 소식이며, 다친 동생에 대하여, 자녀들의 진로에 대하여, 2대를 넘어 3대를 위한 관심과 기도와 축복들... 얼굴은 모르지만, 언젠가 그들을 만나도 어색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아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과 같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행2:42) 가운데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선교사님들도, 또한

이제 컴패션을 통해 새롭게 만나는 해외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의 예쁜 꽃들도 빼 놓을 수 없네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정회원이 된 손자, 손녀도 있습니다. 모임이 마칠 때면 제한된 시간의 아쉬움을 갖는 우리는 많이 닳아져버린 것 같은데, 그것은 혹시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는 엠마오 마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함께 하셨던 우리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찬양위원회(위원장: 박정선 장로)는 우리 교회만이 사용할 복음성가집을 편집하고 있다. 복음성가집은 성도들이 좋은 성가 가사를 보내주면 곡을 붙여 은혜로우면서도 쉽게 부를 수 있게 작성하려고 한다. 사무국과 박정선 장로 E-mail(jsp2016@hanmail.net)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신앙고백문을 작성 제시한다.
- 이사: 6교구 박정수 집사(김경옥 권사) 광명시 광명5동 윌드메트리앙A 105-706
- 득녀: 5교구 백은기 성도, 한지희 성도
- 교역자 휴가: 7월 7일-10일 박진아 목사, 대행: 서명철 목사(박광일 목사), 7월 4일-10일 지혜영 전도사, 대행: 박광일 목사
- 주간식당봉사: 엘리아선교회(7.3) 모세전도회(7.10)
- 금주의 식사: 12교구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가정 김창호 집사 주정희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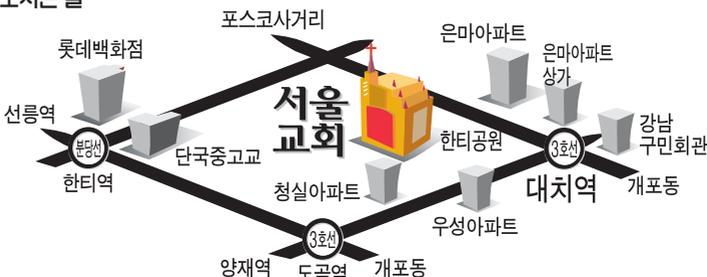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7월과 8월에 진행되는 2011년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 받는 모든 성도 되도록
2. 7월 10일 오후 5시에 있는 한장총 주회 장로교의 날 연합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3. 다락방 사역이 더욱 견고해져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부흥을 잘 담아내는 도구로 쓰임 받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